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26년 5월 21일(목)

참석 위원	최은수 위원장, 김광석 부위원장, 이경화,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박세진, 백명희, 안호림 (9인)
회사 참석 인원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1. 개회

[최은수 위원장]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5월 정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 의견

[김광석 부위원장]

먼저 오티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자폐성 장애(오티즘(Autism):자기물입상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를 비롯한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263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5.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자폐성장애 비중이 약 51.9%인 136만여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장애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할 '다양성'의 범주로 장애를 재정의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CST 교육이나 정부 주도의 재산 관리 제도 등 시청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훈련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조기 교육부터 부모 사후의 경제적 자립 문제까지, 발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전 생애적 고민을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에서 소개된 재산 관리 신탁 제도나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부모나 전문가, 교사의 시선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소회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더 비중 있게 담아낸다면 '다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장애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더불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으며, 이 방송을 통해 정부 관계당국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연합뉴스tv가 오티즘에 대한 외국사례와 인식전환(예: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공익캠페인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부위원장님께서 내용뿐 아니라 의견까지 상세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였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잘 만든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코멘트도 간략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학력 인구부터 자립 청년까지 연령별 오티즘 대상을 다루면서 각 시기별 필요한 지점에 대해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를 통해 그들이 보호받는 약자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지닌 사회 구성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오티즘을 비롯한 발달 장애의 특성상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만큼, 교육과 창업 제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망,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개선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가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동 학대를 논할 때는 먼저 '병든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가족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사건은 친부에게 살해된 양주의 3세 아동, 친모에게 살해된 후 유기된 시흥의 8개월 아동, 친모에게 살해된 여수의 4개월 아동 등 친부·친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들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가해자가 친부·친모라는 사실, 정인이법 개정, 학대 유형 제시, 최근 5년간 사망 아동 100명, 초기 사건 이후 반복되는 학대의 문제, 기관별 협력 관계 개선 필요성, 장기적 사후 관리 필요성 등이 담겨 있었으며, 모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호전문기관 관장의 인터뷰가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정서 장애' 수준으로 너무 가볍게 언급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기사 제목처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병든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심리적 결핍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아동 보호에 필요한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마련되어

야 합니다. 유아는 스스로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병원에서 확인 후 '문제없음'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부터 지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서 3세 아동 사망 사건의 친부 유예와 외조부 입건, 친모 방조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좋은 보도였습니다. 가족 전체를 조명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3세 아동의 경우 경찰과 해당 기관이 위기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려보낸 결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인터뷰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협력 기관 간 협력 실태와 개선 현황도 후속 보도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별 학대 분류에서 더 나아가 학대 부모의 심층적 유형 분석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속초에서 초등학교 8~9세 아동이 교장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힌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부모가 항고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 법적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교장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8~9세 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아이는 집에 돌아가 분명히 부모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학교 폭력, 교사의 처신, 학부모의 대응 등을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아동 학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여 후속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전계순 위원]

최근 주식시장 동향과 맞물려 금융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5060 퇴직금이 위험하다 - 금감원 불법 핀플루언서 적발'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해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천만원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은 적게는 2,5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8천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한 것이 대표적 수법입니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에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으며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잘못된 정보나 이해상충(광고·협찬)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손실 사례 발굴 등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SNS 알고리즘이 과장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구조, 플랫폼의 광고·표시 책임, 규제 사각지대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디지털 금융 사기 등 신종 사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지난해 하이닉스가 기본급의 2,96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하이닉스 발 성과급 경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길 경우 직원 1인당 성과급이 7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자(일반 주주 포함)은 노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 주주 이해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적 배분을 두고 근로자와 경영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들 대기업의 성과가 단순하게 이들 대기업 근로자들과 경영자들의 기여로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의 엄청난 사회간접자본 투입의 혜택 속에서 성취한 결과이며, 특히 협력업체들의 희생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프로그램에서 잘 다뤄졌지만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마땅히 성과급 배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요타처럼 협력기업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 혼자 오롯이 성과를 독점하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뤘더라면 성과급을 두고 경영자와 근로자간 이진투구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가능성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영역이익률·기술투자비·복지 등 양극화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K컬처의 세계적 확산, 반도체 호황, 방산업체들의 활약 등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과를 어느 한쪽이 독식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과창출에 기여한 모든 경제주체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도본부장]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어제 타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로부터 촉발되어 삼성전자로 인해 더욱 사회적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대기업 성과의 배분·공유 문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약 1,700개에 달하는데, 정작 협력업체들은 대기업 노조 파업이 발생하면 당장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성과가 대기업만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기술 개발 여력 없이 한 대기업에 종속되는 구조는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미래도 밝지 않게 합니다. 스페셜이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스페셜이나 탐사 파트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최근 협력업체 문제를 리포트로 다룬 적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성과 배분·공유 문제를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심층 제작해 보겠습니다.

[안서연 위원]

연합뉴스TV 유튜브 홈 화면 배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메인 화면 순서가 스트림, 생방송, 6.3 지방선거 등 현안 이슈, 그다음에 '무간다', '다다를 인터뷰', '이거 진짜예요' 등 가벼운 콘텐츠, 그 다음에 '썬속 뉴스', '현장의 재구성', '이 시간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만큼 '이 시간 주요 뉴스'나 '많이 본 뉴스' 등 주목도 높은 뉴스 콘텐츠가 상단에 배치되고, '이거 진짜예요' 같은 가벼운 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보도본부장]

유튜브 화면 배치는 늘 고민하는 사안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림과 생방송 두 항목은 유튜브 고정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 아래 12개 항목은 저희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6.3 지방선거 시청률이 가장 높아 최상단에 배치하였고, 그 전에는 중동 전쟁이 가장 높아 해당 항목을 최상단에 올렸습니다. '많이 본 뉴스'와 '실시간 뉴스'는 지방선거·중동 전쟁 콘텐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하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뉴스만이 아닌 디지털 기획물을 보러 들어오는 시청자도 많아 중간에 관련 콘텐츠를 배치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뉴스를 상단에 배치하는 원칙에 동의하며, 수시로 최적화하겠습니다.

[안호림 위원]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방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저녁 뉴스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정당 간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집중하는 경마식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5월 8일 부산시장 선거 관련 기사에서는 부산의 현안과 두 후보의 공약을 AI를 활용하여 매칭·분석하였습니다. AI는 뛰어난 도구이나 그 답변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캠프 관계자나 후보와 직접 연락하여 AI가 도출한 이슈가 실제로 핵심 현안인지,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취재하는 과정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방송의 궁극적 목표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것이며, 직접 취재가 그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본부장]

두 가지 지적 모두 비슷한 시각에서 제기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선거 보도가 정당 대결이나 여론조사에 치중된다는 지적은 타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누가 이기느냐'에 집중되어 있어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AI로 분석한 부산 현안 기사는 하루에 나간 다양한 기사 중 한 건입니다. 당일 민심 현장 보도 등 다양한 종류의 기사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AI 분석 기사는 직접 취재를 전제로 한 종합 보도가 아니라, 'AI는 현재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새로운 앵글을 시도한 포맷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명희 위원]

'현장의 재구성' 프로그램을 시청한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표심 잡기 활동을 영상으로 잘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양당 대표의 선거 지원 활동을 영상과 함께 적절한 자막을 활용하여, 딱딱한 뉴스 형식을 벗어나 재미있게 전달하여 시청자가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양당 어느 쪽도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제작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4분 안에 여러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수고하신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가능하다면 선거 전 양당의 활동 내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는 콘텐츠를 한 번 더 제작해 주신다면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도본부장]

'현장의 재구성'은 좋은 영상에 내레이션을 더하는 형식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와 선거판을 이해하는 데 용이한 콘텐츠입니다. 이런 형식의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란 전쟁 관련 특보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답게 시의성 측면에서 전달력이 좋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면 구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제·외교적·군사적 측면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출연자분이 고개를 기울이거나 가르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태도와 제스처에서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것은 좋지만, 공식적인 방송 자리인 만큼 절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생방송 중이라도 해당 장면이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PD 측에서 조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본부장]

이란 특보를 진행하면서 국내 거의 모든 이란·중동·미국 전문가를 방송에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이 처음인 분들도 많고, 반대로 너무 오래 하셔서 다소 자유로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동작도 카메라에 크게 잡히기 때문에 PD를 통해 쪽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중간에 쪽지가 오가면 오히려 긴장하여 방송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문법에 덜 익숙한 전문가가 많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인터넷에서 '연합뉴스TV'를 검색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는데, 링크를 클릭해도 해당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 '본방송', '뉴스 포커스' 등을 클릭해도 응답이 없었고, 하단의 '더 보기'를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클릭하면 영상이 잘 재생되는데 연합뉴스TV만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링크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목만 있고 영상이 없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나는 분들 중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뿐 아니라 연합뉴스TV 본채에서도 일반 시청자들의 주식·경제 관련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뉴스 비중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저희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뉴스 포커스' 등 일부 프로그램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글이 저희 시스템과 연동되어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측에 수정을 요청하여 작업 중이며 조만간 정상화될 것입니다.

경제 뉴스 비중 확대 관련하여, 최근 경제 파트 인력을 늘리고 코너도 신설하였습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기존의 정치·국제 보도 중심에서 경제 쪽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3. 폐회

이것으로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5월 정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